



## 홍익인간의 이념과 인간교육

---

저자 (Authors)	이계학
출처 (Source)	<a href="#">단군학연구 ,(2)</a> , 2000.4, 267-289(23 pages) <a href="#">Journal of Dangun Studies ,(2)</a> , 2000.4, 267-289(23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단군학회</a> Dangun Studies Association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556927">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556927</a>
APA Style	이계학 (2000). 홍익인간의 이념과 인간교육. 단군학연구(2), 267-289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8/18 13:56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 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 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홍익인간의 이념과 인간교육

이 계 학\*

- I. 머리에
- II. 신화를 교육학적인 안목에서 분석해 보아야 할 이유
- III. 홍익인간과 그 이념의 함의
- IV. 홍익인간하는 인격교육의 과정과 원리
- V. 맺음에

## I. 머리에

우리 민족의 시조요 국조로 숭앙되고 있는 단군동상의 목을 베어가는 광신도들이 난무하는 이 시기에 '신은 우리 안에 있다'고 주장한 「신과 나눈 이야기」로 세계적인 베스트 셀러 작가가 된 닐 도널드 월시는 단군정신은 지구촌이 하나가 될 수 있고, 연결고리이며, 21세기를 여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시기에 단군신화에 나오는 홍익인간의 이념을 논의해 본다는 것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이다.<sup>1)</sup>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교육의 대상은 금수나 자연이 아니고 人間이며,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 역시 人間이다. 그러므로 교육의 알파와 오메가는 人間이라 하겠다. 따라서 우리 나라 교육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弘益人間的 理念은 우리 나라 교육이 지향해야 할 교육의 궁극의 目標이

---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교육학

1) 중앙일보, 1999년 8월 27일 41면.

고, 홍익인간은 우리 교육에서 이룩해야 할 이상적인 人間像이다. 그러나 홍익인간의 교육이념은 광복이후 유물사관에 젖은 공산주의자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그 이후에는 미국식 학문과 종교로부터 세례를 받은 서구주의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왔다. 일찍이 백남운은 1946년 7월 “조선역사학의 과학적 방법론”이란 논문을 통하여 홍익인간의 교육이념이 神話에 토대를 둔 반동적인 관념이며, 민주건국이라는 시대적 과제에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판을 했다. 그는 교육법이 제정되기도 이전 홍익인간의 이념이 우리 교육이 입각해야 할 민주교육의 기본원칙으로 일본제국주의의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말살하고, 민주주의 정신을 부식(扶植)하며, 과학사상을 발양하는 데 위배되는 반동적 비과학적 이념이라고 공격을 하였다.<sup>2)</sup>

다른 한편으로 서구주의자들은 홍익인간의 교육이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교육을 실질적으로 지도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실증되지 않은 神話에 근거하고 있으며, 더욱이 홍익인간의 교육이념의 배후에 존재하는 세계관, 이데올로기로서의 民族主義에 대해서도 그에 수반하는 의도나 그것이 유발할 수 있는 결과를 들어 世界市民 意識을 제약하기 때문에 부적절함을 역설하기도 하였다.<sup>3)</sup> 그리고 홍익인간의 교육이념이 우리의 삶의 체제와 직접적인 관련성도 빈약하고, 제도권 교육의 내용선정과 조직, 교육방법 및 교육평가에 일관하는 교육의 準據로써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하여 교육개혁과 교육과정 개편작업이 논의될 때마다 홍익인간의 교육이념을 바꾸자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었다.<sup>4)</sup> 그 결과 5·31 教育改革方案에 따른 教育關

2) 鄭英薰, 「홍익인간 이념의 유래와 현대적 의의」, 『정신문화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17~18쪽.

3) 정영훈, 위의 논문, 1999, 18쪽.

4) 拙稿, 「교육문화 속의 비합리적 요소」, 『한국사회의 비합리성과 부패의 구조』

係法 試案에서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여 인류공영의 이상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教育理念條가 “교육은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면서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고, 弘益人間의 精神으로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이념으로 삼는다”로 바뀌어질 뻔하였다.<sup>5)</sup> 그러나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홍익인간의 교육이념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그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다.

民族主義 云云은 金宗西가 언급한 대로 定義하기가 어려운 일이지만 핵심사상은 서로 소속되어 있다는 사상(sense of belongingness)에 토대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민족주의에는 소속될 수 없는 남은 집단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것을 단일 민족국가인 국가단위로 체제화 한다면 主體性 또는 正體性을 유지하려는 공동의 意志로 해석할 수 있다. 러셀이 구분한 바와 같이 그러한 意志가 나치즘이나 파시즘, 그리고 일본제국주의와 같이 침략적 민족주의로 나타날 때는 民主主義와는 영원한 적으로 남겠지만 소박한 民族主義를 생각한다면 자기가 자란 향토를 사랑하고, 국가를 개개인이 자아를 최대로 실현할 수 있는 단위로 본다면 民族主義와 民主主義는 공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補完하는 關係에 있다.<sup>6)</sup>

그리고 과학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화시대가 전개되는 21세기의 지구촌 시대에 나치즘이나 파시즘, 일제와 같은 침략적 민족주의의 이데

형성과 창조 제 5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144~145쪽.

5)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 교육관계법 시안」, 제 3차 대통령보고서, 1996/2/9.

6) 김종서, 「민족주의의 바른 이해」, 『民主教育』 제 9호, 사단법인 천원기념회, 1999, 3쪽.

올로기가 나타날 가능성도 희박하며, 그리고 홍익인간의 교육이념이 우리 교육의 내용과 방법, 평가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따지고 보면 교육이념의 抽象性을 부정하는 주장이다. 교육이념이란 것이 한 나라의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그 나라의 교육이 성취해야 할 궁극의 목표라면 교육이념의 수준은 한 나라의 교육이 지향해야 할 구체적인 목적을 제시하는 수준은 아니다. 그러므로 교육의 이념이 존재하는 한 그것은 구체적인 개념이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일 수밖에 없는 일이고, 그 이하에서 교육의 내용과 방법과 평가의 지침을 구체화할 수 있는 굵직한 교육의 목적들로 규정이 되는 것이다. 더욱이 세계화란 것이 단일화가 아니라 다양화 속에서의 조화로운 발전이라면 多様な 樂器가 제소리를 내면서 함께 어우러지는 심포니처럼 각개 민족마다, 각개 나라마다 그들 나름대로의 문화적인 특수성을 지닐 때 人類共榮의 理想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보다 필자가 홍익인간의 교육이념을 우리 민족의 교육이념으로서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우리 민족에 있어 홍익인간이 어떤 인간인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 Ⅱ. 신화를 교육학적인 안목에서 분석해 보아야 할 이유

홍익인간 교육이념의 단초를 마련하고 있는 檀君神話를 '신화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전개하여 교육법에서 홍익인간이 이념을 삭제할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신화가 神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口傳을 통해서 참으로 오랜 동안 傳承되어 오면서 定型化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신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의하면, 세계 어느 민족에 있어서나 그들 공유의 문화유산으로 說話를 가

지고 있다고 한다. 넓은 의미에서 신화도 傳說이나 民譚과 같은 설화의 한 형태이지만 오락적인 목적에서 이야기되는 民譚이나 사회적인 공명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야기되는 傳說과는 다르다. 神話는 진실할 뿐만 아니라 경외해야 할 신성한 것으로 생각되어 문화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神話는 현실생활 속에 지금도 살아 있는 현실의 敘述로서 도덕적 가치나 사회적 질서나 주술적 신앙의 回顧的 典型을 提供한다는 것이다.<sup>7)</sup> 따지고 보면 神話는 고대인들이 현실을 설명했던 口傳의 역사요,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았던 의식구조이고, 사고방식이며, 신앙이고, 삶 자체이기도 했다. 말하자면 神話는 태고의 옛 이야기로서 그 민족의 역사와 우주관과 세계관, 인간관과 인생관, 종교, 사상, 교육과 정치 등등이 현대와 같이 분화되기 이전의 태고적 이야기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神話는 한 민족이 공유하고 있는 根源語이고, 한 민족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眺望해 볼 수 있는 틀이나 테가 될 수 있는 原型으로 본다.<sup>8)</sup> 또한 神話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객관적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한 기록(역사적 기술)이 아니라 고대인들의 궁극적인 관심 또는 종교적인 사실을 象徴的으로 表現한 說話이다. 그러므로 신화는 意味의 象徴體이다. 그러나 그것은 인지가 발달하고 학문이 분화되기 이전 태고의 옛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 논리적 사고, 태고 논리적 사고, 유아적 사고 또는 무의식적 사고의 특징을 지닌다. 즉 신화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주관과 객관을 무시하며, 사고나 사물의 전후 순서를 무시한다.<sup>9)</sup> 神話에 대한 이러한 관점을 염두에 두고 教育學的인 眼目에서 檀君神話가 담지하고 있는 象徴的인 意味가 무엇이고, 弘益人

7) 王彬, 『神話學入門』, 금란출판사, 1980, 42쪽.

8) 金烈圭, 『韓國의 神話』, 일조각, 1978, 120쪽.

9) 李炳允, 「檀君神話의 精神分析」, 『思想界』, 1963/11, 257~263쪽과 1964년 新年號의 272~279쪽.

間의 理念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 보고자 한다.

특별히 교육학적인 안목에서 신화를 접근해 보아야 할 첫째 이유는 祭/政/教가 분리되기 이전의 세계에서는 제사장이 임금이고, 임금이 스승이라는 점이다. 종교학자들에 따르면 고대 우리 민족의 신앙은 샤머니즘이다.<sup>10)</sup> 또한 한국미술사를 연구한 코벨 여사는 신라의 왕들은 샤먼 왕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sup>11)</sup> 그러한 典據를 우리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남해 차차웅條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sup>12)</sup> 그러한 맥락의 연구로는 최남선의 연구가 있다. 그에 의하면 우리 민족의 시조인 檀君은 탕글이고, 단골이며, 그는 무당으로서 한국인의 始祖로서 등장한다.<sup>13)</sup> 이런 관점에서 보면 巫文化속에서 영험한 무당은 제사장이며, 임금이고, 스승일 수밖에 없다. 우리말로 단군신화를 분석한 정호완에 의하면 사이(間)를 뜻하는 ‘스’에 접미사 ‘웅’이 어우러진 말의 짜임새가 스승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실지로 함경도 사투리에 서는 ‘스승’이 무당을 뜻하는 말로 쓰인다고 한다. 그러므로 단군은 스승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왕점은 오늘날과 같이 행정책임의 우두머리, 곧 ‘임금’의 뜻으로 새길 수 있다. 그래서 檀君王儉은 제사장 檀君과 행정의 머리 王儉의 합성어란 것이다.<sup>14)</sup>

다른 한편으로 임금이 스승이 아니라 ‘스승이 임금이 되었다’는 고대의 흔적을 『禮記』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10) 柳東植, 『韓國巫敎의 歷史와 構造』,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8. ; 조홍윤, 『무와 민족문화』, 민족문화사, 1990.

11) 존 카터 코벨, 김유경 엮어 옮김, 『한국문화의 뿌리를 찾아』, 학고재, 1999, 135쪽.

12) 『三國史記』 卷第一, 紀異 第2 남해왕조와 신라본기, 第1 남해차차웅조에 金大問을 인용하여 차차웅이나 자충은 무당이라는 것이다. 『三國遺事』에도 「三國史」를 인용하여 차차웅이나 자충이 무당이라 하였다.

13) 崔南善, 「不咸文化論」, 『六當崔南善全集』, 현암사, 1974, 59쪽.

14) 정호완, 『우리말로 본 단군신화』, 명문당, 1994, 8쪽.

君子가 학문에 이르는 難易를 알고, 그 美惡을 안 後에야 능히 널리 깨우친다. 널리 깨우칠 수 있는 後에야 능히 스승이 되고, 능히 스승이 된 後에야 능히 (師)長이 되고, 능히 (師)長이 된 後에야 능히 한 나라의 君主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스승이라는 것은 君主가 되는 길을 배우는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스승을 선택하는 일을 삼가지 않을 수 없다. 옛 기록에 이르기를 三王四代(夏殷周 세 王朝에 處를 더한 것)는 오직 스승이라 했는데 곧 이를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sup>15)</sup>

위의 논의에 따르면 檀君은 ‘무당’이고, ‘임금’이자 ‘스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고대에는 스승이 군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檀君神話는 우리 교육의 원형을 담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할 수 있다. 둘째로는 祭/政/教가 미분화 상태에 있었던 단군신화에 나타나 있는 개국의 이념인 弘益人間的 理念은 고대 한국인의 통치 이념인 동시에 종교의 이념이요, 교육의 이념이라는 점이다. 셋째는 신화를 祭儀社會學的인 方法으로 해석해 내는 문화인류학자들(一名 祭儀學派)에 따르면 祭儀가 言語化된 것이 神話이고, 神話가 行動으로 표현된 것이 祭儀이다.<sup>16)</sup> 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소수 원주민족의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사회제도의 하나로서 祭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成年入社式(initiation ceremony)이 있다. 이 儀式은 성년식과 입사식을 통칭하는 말로써 성년식은 일정한 연령에 달하여 소년에서 청년으로 넘어간다고 생각되는 일정한 시점을 택해서 일생의 경로 중 하나의 복잡한 의식과 절차를 행한다는 점에서 通過儀禮의 一種이다. 그 이후에

15) 『禮記』 學記 10. 팔호 속의 것은 필자가 추가한 것으로 이하는 해당 원문임.  
 “君子 知至學之難易 而知其美惡然後 能博喻 能博喻然後 能爲師 能爲師然後 能爲長 能爲長然後能爲君 故 師也者 所以學爲君也 是故 擇師 不可不慎也 記曰 三代四代 唯其師 其此之謂乎.”

16) Kurt Hubner, 이규영 옮김, 『신화의 진실』 대우학술총서 번역 41, 민음사, 1995, 56~61쪽.

는 이들을 대상으로 은밀한 장소에서 후속되는 成年學校라는 것이 있다. 이 성년학교의 교육의 목적은 가족의 일원이었던 소년을 社會의 成員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의 내용은 지역이나 部族에 따라 차이가 많기는 하지만 공통점을 찾는다면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들이 아니라 첫째 종교적 지식이며, 둘째는 종교의례의 절차와 그 절차에 따른 행위유형, 노래와 춤과 獻物을 설명하고, 이러한 것들에 含意되어 있는 의미와 가치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는 부족의 역사에 관한 전설이나 설화를 이야기하여 영웅들을 본받게 하는 것이다.<sup>17)</sup>

신화를 해석하는 祭儀學派의 이 學說을 성년식과 입사식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비추어 보면 檀君神話는 우리의 옛 조상들이 태고적 시절에 성년입사식에서 행했던 의식이 언어화된 표현이고, 성년학교에서 가르쳐졌던 교육의 핵심내용이며, 후세들에게 꼭 전승시켜 주고 싶었던 한국인의 ‘얼’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의 말미(본풀이)를 전해주는 단군신화는 한국인의 교육의 원형이라 하겠다. 따라서 단군신화에는 우리 민족이 理想으로 하고 있는 한국인의 이상적인 인간상은 물론 그러한 인간이 되는 사람됨의 과정과 방법적 원리 등등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주관과 객관을 무시하고, 사고나 사물의 전후순서를 무시한 유아적 사고의 형태로 내포되어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상의 논의를 端初로 하여 교육학적인 안목에서 弘益人間이란 말의 意味가 무엇이며, 弘益人間의 教育理念이란 것이 무엇이고, 홍익인간은 어떠한 방법적 원리와 사람됨의 과정을 통해서 홍익인간이 되며, 홍익인간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인지를 檀君神話를 텍스트로 하여 규명해 보고자 한다.

17) 李光奎·金泳燦, 『文化過程과 教育』, 교육출판사, 1977, 106~134쪽.

### Ⅲ. 홍익인간과 그 이념의 함의

기록으로 전해지고 있는 檀君神話는 고려시대 僧 一然이 1282~1283년간에 찬술한 것으로 추정되는 『三國遺事』가 현존하는 최고의 문헌이다. 이것과 거의 동시대의 典籍으로는 1287년에 쓰여진 이승휴의 『帝王韻紀』가 있고, 그후 160여년 후인 1454년의 「世宗實錄地理志」와 1461년에 權近의 應製詩에 붙인 權擘의 增註에도 단군신화가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205년 후인 1666년에 쓰여진 洪萬宗의 『海東異蹟』과 1705년의 『東國歷代總目』, 安鼎福의 『東史綱目』(1776), 李肯翊의 『燃藜室記述』 등에도 보인다.<sup>18)</sup> 단군신화에 대한 이들 자료들의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대표적인 것은 『三國遺事』의 「檀君神話」라 하겠다.

이들 앞의 네 史料를 비교·검토한 金廷鶴은 ‘단군신화에는 桓因뿐만 아니라 弘益人間이란 것도 佛敎思想이며, 또 天符印이니 風伯, 雨師, 雲師 등도 道敎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단군신화에는 불교나 도교 등의 영향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우나 檀君神話의 原型과 그 根本思想에는 불교나 도교의 요소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原型은 원시조선의 대단히 오래된 형태를 遺存하고 있다’는 것이다.<sup>19)</sup> 따라서 본고에는 『삼국유사』의 「단군신화」를 텍스트로 하여 그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弘益人間이란 말은 해석여하에 따라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된다. 弘益을 ‘術語로 보느냐 아니면 修飾語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18) 徐永大, 「檀君關係 文獻資料 研究」 『檀君: 그 이해와 좌표』,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50쪽.

19) 金廷鶴, 「檀君神話와 토오테미즘」 『歷史學報』 제7집, 1954, 273~298쪽.

弘益을 術語로 보면 홍익인간이란 말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일)”이라 할 수 있고, 弘益을 修飾語로 보면 “널리 이롭게 하는 人間”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자의 의미로 해석하면 人間을 이롭게 하는 일, 즉 弘益에 포인트가 주어지고, 후자의 의미로 해석하면 人間에 포인트가 주어진다. 韓基彦은 홍익하는 人間으로 볼 때는 利他精神을 지닌 인간이요, 인류공영의 이상을 지닌 人間이라 할 수 있고, 불교적인 해석으로 홍익인간을 弘益人間世로 볼 때에는 福祉社會를 실현하지는 理想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sup>20)</sup> 朴先榮은 『大乘起信論』에 나오는 ‘弘益衆生’과 大乘經典 도처에서 산견되는 ‘饒益衆生’이니 ‘利益衆生’이니 하는 개념을 들어 弘益衆生과 弘益人間은 대체될 수 있는 概念이라 것을 논증하여 弘益人間이란 말은 불교적으로 윤색된 用語임을 立證하고 있다.<sup>21)</sup> 이런 불교적인 용례에 따른다면 弘益人間이란 말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일)’으로서 弘益에 포인트가 있고, 衆生과 人間은 대차 없는 개념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三國遺事』를 찬술한 一然이 스님이기에 「古記」를 인용하여 단군신화를 채록할 당시 일연스님이 불교적으로 윤색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4~5년 후에 쓰여진 『帝王韻紀』에 이승휴가 「本紀」를 인용하여 기술한 단군신화에도 ‘弘益人間’이란 말이 그대로 인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 一然이 단군신화를 채록할 당시에 불교적인 용어로 윤색한 것이 아니라 일연이나 이승휴가 檀君神話를 채록하기 훨씬 이전에 「古記」나 「本紀」에 이미 弘益人間으로 채록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거의 동시대에 쓰여진 일연의 단군신화나 이승휴의 단군신화의 구체적인

20) 韓基彦, 『韓國教育理念의 研究』, 태극문화사, 1992, 88쪽.

21) 朴先榮, 「한국교육사에 있어서 불교사상」, 『한국교육의 사상적 연원』, 한국교육학회 한국교육사연구회 제 11주년기념 학술발표대회 세미나자료, 1978/11, 30~32쪽.

내용이 다른 것을 보면 두 사람이 각기 인용한 「古記」와 「本紀」는 동일한 史料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sup>22)</sup> 160여 년 후 일연이 삼국유사를 인용한 「古記」를 인용하여 채록했다는 『世宗實錄地理志』 「平壤府條」와 『權擘應製詩注』 「始古開關東夷主條」에서는 弘益人間이 ‘意欲下化人間’으로 기술되어 있다.<sup>23)</sup> 이 두 자료를 보면 人間이 下化해야 할 대상, 教化/교육해야 할 對象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세종실록지리지의 필자나 권람은 홍익인간의 인간을 教化/교육이 대상이 되는 ‘사람’이란 의미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찍이 丁淳睦은 弘益人間이란 개념 중 人間이란 말은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그것을 채록할 당시에 있어서는 ‘누리’라는 뜻으로 기록된 것이라 하여 弘益人間이란 말은 “널리 누리를 이롭게 한다”는 뜻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sup>24)</sup> 『삼국유사』가 쓰여진 245년 이후인 1527년에 쓰여진 『訓蒙字會』에 의하면 사람이란 의미의 ‘人間’ 世字가 “누리” 世字로 訓讀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 단군신화가 「古記」나 「本紀」에 채록될 당시에 人間이란 말은 사람이 아니라 ‘누리’라는 의미로 쓰여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나 「古記」나 「本紀」에 단군신화가 채록된 때가 어느 때인지도 알 수 없고, 또 人間이란 말이 ‘누리’라는 뜻으로 쓰였다는 뚜렷한 증거도 찾아보기 어려워 人間이란 말을 ‘누리’와 동일한 의미로 쓰여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三國遺事』의 檀君神話에 보면 貪求人世의 人世나 人間三百六十餘事의 人間, 在世理化의 世, 願化爲人의 人, 便得人形의 人, 不得人身의 人에서

22) 李奎報·李承休, 朴斗抱 譯, 『東明王篇 帝王韻紀』, 을유문고 160, 을유문화사, 1982, 162쪽에서 譯者는 『帝王韻紀』 下卷의 序에 보이는 本紀는 國史의 本紀 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3) 鄭寅普, 「始祖 檀君」, 『朝鮮史研究 上』, 薺園 鄭寅普全集 3,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3, 35쪽.

24) 金仁會·丁淳睦, 『韓國 文化와 教育』,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74, 127~138쪽.

‘人’이나 ‘世’나 ‘人世’나 ‘人間’이란 말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쓴 것을 보면 당시 人間이란 말이 오늘의 人間이란 말과 뉘앙스가 있는 개념이긴 하지만 檀君神話를 채록할 당시 ‘人間’이란 말이 “누리”라는 뜻으로 쓰였다고 단정하기엔 아직 이른 것 같다. 왜냐하면 홍익인간의 人間을 ‘누리’라는 동일한 개념으로 본다면 世나 人世라는 말이 ‘누리’에 더 가까운 말이고, 사람이란 뜻으로 人間을 본다면 ‘人’에 더 가까운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보면 弘益人間이란 “널리 人間을 이롭게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만 하고, 홍익인간의 人間이란 말이 ‘누리’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의미하는 말인지는 분명치가 않으나 金仁會의 주장대로 단군신화에 있어 人間이란 말은 人間과 世間을 포괄하는 폭 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개념으로 보인다.<sup>25)</sup> 더욱이 현대의 중국어(백화문)에서 人間이란 말이 ‘세상’이란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광복이후 弘益人間을 우리 나라의 교육법에 교육이념으로 규정할 당시 弘益人間의 人間이란 말은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만은 부정할 수가 없는 것 같다.<sup>26)</sup> 왜냐하면 당시에 있어서 人間이란 말은 ‘사람’을 뜻하는 개념이며, 교육의 알파와 오메가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人間이기 때문이며, 홍익인간을 孤立語인 漢文式으로 읽으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일’이고, 膠着語인 우리말 식으로 읽으면 ‘홍익하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에 따른다고 하

25) 金仁會, 「21세기 한국교육과 홍익인간 교육이념」, 『정신문화연구』 통권 74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3, 46~48쪽.

26) 金仁會, 앞의 책, 47쪽과 金仁會, 위의 논문에서도 “개국이념으로서의 홍익인간은 삼국유사 집필자가 사용했던 개념과 같은 의미라고 말하기 어렵고, 개국이념으로서의 홍익인간은 원래 사람과 자연을 함께 생각하는 개념이었지 결코 사람중심의 개념이 아니었던 것인데 교육이념으로 채택될 때의 홍익인간에서는 사람위주의 이상주의로 변질된 것”으로 보고 있다.

면 교육이념으로서의 홍익인간의 인간은 弘益하는 人間, 즉 널리 이롭게 하는 人間으로 해석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단군신화에서 弘益人間이란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개념인지를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단군신화의 이야기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sup>27)</sup>

단군신화의 첫째 단락을 보면 천상의 신인 桓雄이 천하로 강림한다. 천상의 신이 천하로 강림한 까닭은 인간이 사는 세상(人世)이 그리웠기 때문이고(貪求人世), 天神이 인간세상(人世)을 그리워한 까닭은 가히 홍익인간(可以弘益人間)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天神이 어디로 내려왔다는 것인가? 신화에 의하면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이다. 이 말은 높은 산, 큰 나무로 내려왔다는 이야기다. 신화학적으로 태백산은 宇宙山이고, 신단수는 宇宙木이며, 샤머니즘의 관점에서 보면 높은 산은 천신(산신령)이 깃드는 장소이고, 우주목은 천신이 오르내리는 서낭당의 서낭목이며, 굿판의 신장대이다. 신화에 의하면 환웅은 弘益人間하는 방편으로 3,000의 무리와 풍우를 다스리는 風伯, 雲師, 雨師를 거느리고 왔으며, 천부인 3개를 가지고 와서 神檀樹 아래 神市를 베풀었다. 그리고 主穀, 主命, 主病, 主刑, 主善惡 등 360여종의 人間事를 이 世間에서 理로써 다스리고 教化(교육)했다는 것이다.

이것을 보면 弘益人間이란 다른 무엇이 아니라 農耕民(백성)들이 農事를 잘 지어 배불리 먹고, 無病長壽하게 하는 일이며, 善惡을 가려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잘못을 범하면 罰을 주어 사람다운 삶을 이승에서 ‘잘 살고’, 또 ‘잘 살아가도록’ 理致로 다스리고 教化/教育하는 일이다. 이 이야기에서 弘益人間의 主體는 천신인 桓雄이고, 그 대상은 신시의 百姓(사람들)들이다. 이것을 보면 환웅은 신시의 임금인 동시에 스승이

27) 단군신화의 이야기는 拙稿, 「檀君神話의 教育學的 考察」 『社會構造와 社會思想』, 仁谷黃性模博士華甲記念論文集, 尋雪堂, 1985, 125~150쪽을 참고한 내용임.

며, 무병장수를 빌고, 농사가 잘되게 풍우를 주재한 것을 보면 天神으로서의 샤먼(巫)이다. 그야말로 祭/政/教가 분화되기 이전의 삶의 세계이다. 그리고 이 문맥에서 사람다운 사람, 사람다운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보면 弘益人間란 말은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일’이지 ‘누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개념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홍익인간의 이념이 무엇을 함의하고 있는 개념인지를 밝혀 내기 위해서는 ‘理念’이란 말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하겠다.

辭典의인 의미로 理念이란 사물에 대한 表象, 意識, 內容, 思想 등을 의미하며, 理性에 의해 얻어지는 최고의 概念으로 칸트에 있어서는 경험을 초월하는 신이나 자유, 죽음 등과 같은 개념을 말하며, 지극히 일반적인 의미로는 觀念으로서 어떤 것에 대한 생각이나 견해 등을 의미한다. 韓基彦은 교육이념에는 다섯 가지의 특성, 즉 原理性(추상성), 定向性, 價値性, 普遍性, 理想性, 評價性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人間形成의 核心思想으로서 ‘기초’와 ‘멋’을 들고 있다.<sup>28)</sup> 다른 한편으로 교육학에서는 교육의 目的(aims of education)과 目標(educational objectives)를 혼동하여 쓰기도 하지만 수업시간 단위수준의 교육에서 성취해야 할 교육의 목표는 ‘主眼點’이라 하고, 최고의 상위수준에서 달성해야 할 교육의 목표는 理念이라 하는 것이 관례이다. 따라서 구체와 추상의 차원에서 보면 교육이 지향하는 목표를 수준에 따라 ‘주안점 ⇒ 교육목표 ⇒ 교육목적 ⇒ 교육이념’으로 보는 것이 통례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教育의 理念이란 우리 교육이 지향하고, 성취해야 할 궁극적인 수준의 추상적인 교육의 목적이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 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홍익인간의 교육이념이란 ‘홍익인간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기르는 것을 이상으로 하는 교육’이라 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28) 韓基彦, 앞의 책, 1992, 154~155쪽.

널리 누리를 이롭게 하는 인간이라 해도 무방하고, 한국인의 이상적인 인간상으로서 홍익하는 인간이라 해도 커다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교육의 이념을 韓基彦이 제시하고 있는 교육이념의 다섯 가지 특성, 즉 원리성, 정향성, 가치성, 보편성, 이상성, 평가성에 비추어 보면 홍익인간의 교육이념은 무엇보다도 原理性이 결여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이념의 原理性이란 교육이념이 인간형성의 기본원리를 제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sup>29)</sup> 홍익인간의 교육이념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 것인지 그 過程的, 方法的 原理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弘害人間은 저절로 생겨날 수 있지만 弘益人間하는 人間은 교육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다. 우리 민족의 교육의 원형인 단군신화의 곰녀 이야기는 畜生같은 인간이 어떻게 사람다운 사람으로 변신하고 있는지를, 즉 홍익인간 하는 인격으로 확립되는지를 실감나게 묘사해 주고 있다.

#### IV. 홍익인간하는 인격교육의 과정과 원리

단군신화의 두 번째 단락은 곰녀 탄생의 이야기다. 가장 논의의 여지가 많은 부분으로 천상족과 곰족의 결합의 표상으로도 해석하기도 하고,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지모신 신앙과 종교적 이니시에이션의 표현이라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교육학적인 안목에서 보면 곰녀탄생의 이야기는 홍익인간 할 수 있는 인격이 확립되는 과정과 원리를 여실하게 드러내 주고 있는 이야기다.

29) 韓基彦, 위의 책, 1992, 6~7쪽.

한 때 곰과 호랑이는 같은 동굴에 살고 있었다. 그들은 항상 신웅(환웅)에게 빌기를 “원컨대 사람으로 변하게 해 주소서!” 하였다. 한번은 환웅이 신령스런 썩 한 다발과 마늘 20개를 주며 말하기를 “너희가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아니하면 곧 사람이 되리라!” 하였다. (그래서) 곰과 호랑이가 이것을 받아먹고 禁忌하기 삼칠일만에 곰은 여자의 몸이 되었고, 호랑이는 참지 못하여 사람이 되지 못했다.<sup>30)</sup>

곰녀가 탄생하는 이 이야기의 의미표상은 자명하다. 곰과 호랑이는 두발로 걷는 존재가 아니라 네발로 걷는 짐승들이다. 그리고 한국의 기후와 풍토에서는 왕자로 군림하며 구전의 전설과 설화에 회자되는 짐승들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에게 있어 호랑이는 날래고 성미가 급한 남성적인 짐승이라면, 곰은 미련하리만큼 동작이 느리고 참을성이 많은 여성적인 동물이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의 대명사는 곰이고, 사나운 사람의 대명사는 호랑이다. 또한 못된 짓을 한 사람을 짐승이나 禽獸에 비유한다. 이것을 보면 단군신화 속의 곰과 호랑이는 성격이 서로 다른 보통사람을 의미한다. 곰은 여성을, 호랑이는 남성을 의미한다. “한 때 곰과 호랑이가 같은 동굴에 살았다”고 한 것은 성격이 다른 한 남성과 한 여성이 같은 마을에 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굴은 동물이 깃드는 장소이고, 생명을 잉태하는 자궁이기 때문이다.

신화에 의하면 천상적인 존재인 신웅(환웅)은 신이기에 자유자재로 人世에 올 수도 있고,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 곰과 호랑이는 지상의 왕자적인 존재이기는 하지만 제 뜻대로 사람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神雄에게 사람되기를 간절하게 빌었던 것이다. 그 지극한 정성에 신웅이 감동해 신령스런 썩 한 쭈과 마늘 20개를 주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

30) 『三國遺事』 1, 紀異 第一, 古朝鮮 王儉朝鮮, “時有一熊一虎 同穴而居 常祈于神雄 願化爲人 時神遺靈艾一炷 蒜二十枚曰「爾輩食之 不見日光百日 便得人身」熊虎得而食之 忌三七日 熊得女身 虎不能忌 而不得人身.”

지 아니하면 사람이 되리라고 가르쳐 주었다. 간략하게 말하면 썩과 마늘을 먹고 캄캄한 동굴에서 100일 동안 참으면 사람이 되리라는 가르침이었다. 썩과 마늘은 쓰고 매운 것의 상징이요, 캄캄한 동굴은 참아내기 어려운 암울한 장소이다. 그곳에서 100일을 참으라는 것이다. 그리하면 사람이 된다는 가르침이다. 100은 古語로 ‘온’이요, 온은 전체, 전부, 모두를 의미하는 말이니 그忍苦의 기간이 산술적인 100일이 아니라 불확정적인 오랜 기간을 의미한다. 더욱이 곰이 곰녀가 된  $3 \times 7 = 21$ 일을 상기하면 더욱 그렇다. 또한 神이 거짓이 없는 전지전능한 존재라는 것을 감안하면 100일은 ‘온’일이다. 신화에 의하면 그것을 감내한 곰은 곰녀가 되었지만 그것을 참고 견디지 못한 호랑이는 사람이 되지 못했다.

사람다운 사람에 비하여 곰과 호랑이를 보통사람을 축생과 같은 존재로 은유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 곰녀 이야기가 표상하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자명해 진다. 弘益人間할 수 있는 인간, 즉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가 사람됨의 과정에서 당면하는 쓰고, 맵고, 암울한 고난을 감내하고, 극복해 나가면 언젠가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자궁(동굴)에서 신생아가 태어나듯이, 알속에서 병아리가 깨어나듯이 ‘신비롭게도’ 새로운 인격으로 태어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령스런’ 썩과 마늘이라 했던 것이다. 이것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축생과 같은 보통 사람이 홍익인간을 할 수 있는 인간, 즉 탈자기중심적이고, 이타적이며, 애타적인 삶을 자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간다운 인간의 인격으로 확립되는 人格教育의 過程的 原理이다.

곰녀는 홍익인간 할 수 있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썩처럼 쓰고, 마늘처럼 맵고, 햇빛 없는 동굴처럼 암울한 인간의 苦惱를 곰처럼 인내하여  $3 \times 7 = 21$ 일만에 인격을 확립하였다. 그래서 곰은 곰녀로 탄생한 것이다. 그것은 사람다운 사람의 탄생이요, 홍익인간 할 수 있는 인

격의 확립이요, 한 여인의 탄생이다. 그렇다면 3×7일의 象徴은 무엇인가? 곰녀탄생의 3×7일은 병아리가 알을 깨고 부화하는 기간이다. 닭과 인간이 함께 살아온 오랜 역사를 감안한다면 3×7일의 意味表象은 병아리가 알을 깨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라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생명이 탄생한 이후 3×7일간의 禁忌期間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곰녀탄생의 이야기는 곰녀탄생 이후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곰녀탄생의 의미표상은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가 당면하는 쓰고, 맵고, 암울한 고난을 극복하고, 그것을 감내해 가면 언젠가는 병아리가 알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화하듯이 ‘신비롭게도’ 하나의 어엿한 인격, 즉 홍익인간 할 수 있는 인격이 확립된다는 가르침이다. 이 곰녀 이야기 속에 내포된 인격확립의 과정, 즉 사람됨의 과정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 (1) 고난의 당면 -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당면하는 쓰고, 맵고, 암울함—苦痛
- (2) 정신적 죽음의 실천 - 이기적, 자기중심적, 축생적 자기자신의 극복  
———克己
- (3) 재생 - 인격의 확립(이타/에타적, 탈자기중심적 새로운 인격의 탄생)  
———復禮

이 인격확립의 과정을 가로로 간략하게 圖式化하면 다음과 같다.

고난의 당면 ⇒ 정신적 죽음의 실천 ⇒ 再生(重生)  
苦難 —————→ 克己 —————→ 復禮

이 인격확립의 과정은 종교학자인 엘리아데가 밝혀 놓은 聖俗辨證法的인 過程으로써 降神巫가 되는 過程과 일치하고 있으며,<sup>31)</sup> 기독교에

서 말하는 ‘重生の 過程’이나 불가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과정’, 선진유가에서 말하는 ‘一以貫之’나 성리학파에서 말하는 ‘豁然貫通의 過程’, 실존주의 교육에서 말하는 ‘脫自’나 ‘만남의 과정’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곰녀는 聖俗辨證法的인 過程을 거쳐 사람다운 사람으로 成人身한 聖女이며, 巫女이며, 弘害人間이 아니라 弘益人間 할 수 있는 人格을 확립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때 그녀의 나이는 芳年 21세이다.<sup>32)</sup>

단군신화의 셋째 단락은 우리 민족의 시조인 檀君 誕生의 이야기이다. 신화에 의하면 “곰녀는 그와 결혼하여 주는 이가 없음으로 항상 신단수 아래서 아기 갖기를 빌었다. 환웅이 이에 잠깐(사람으로) 변하여 그와 결혼하고 아들을 낳으니 이를 일러 檀君王儉이라 하였다”는 것이다. 단군이 탄생하는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 민족의 人間觀이 반영되어 있다. 곰녀는 지상적인 존재이고, 동물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이며, 환웅은 천상의 존재이고, 신성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이 두 존재가 결합하여 단군이 탄생했다는 象徴的인 意味는 인간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탄생한 ‘사잇적(間) 존재’이다. 그러므로 천상적인 요소와 지상적인 요소를

31) 멀치야 엘리야데, 李東夏 譯, 『聖과 俗: 종교의 본질』, 학민사, 1991, 150~162쪽.

32) 『黃帝內經素問』上古天眞論篇, 第一 生長論에 따르면 여성의 성장지수는 7이고 남성의 성장지수는 8이다. 단군기사에서 곰녀가 3×7일만에 成人身했다는 것은 그녀의 나이 21세를 의미하기도 한다. 7×1=7세는 남녀7세 부동석으로 여성에 느뜨기 시작하는 나이이고, 7×2=14세는 여성의 사춘기이고, 7×3=21세는 여성이 회임할 수 있는 나이이고, 7×4=28세는 여성으로써 완숙한 나이이며, 월중행사의 주기이며, 28의 10배는 임신기간이다. 7×5=35세, 남성은 8×5=40세가 성이 쇠잔해지는 나이로 보이며, 7×7=49는 여성의 성장지수가 끝나는 시기로 회임이 불가능한 시기이다. 우실하의 『전통문화의 구성원리』, 소나무, 1998에 따르면 동해안을 거쳐 남으로 이동한 가야나 신라는 삼족오 신앙(태양숭배문화)으로부터 시작하는 3수분화의 세계관, 천지인 삼재사상에 의하여 문화를 형성했다는 것이다. 이런 안목에서 보면 3수분화의 세계관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단군신화로 보인다.

함께 지니고 있는 존재라서 地上에 살면서 하늘을 지향하는 존재, 즉 동물적인 욕망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신성을 지향하면서 살아가는 二重的인 存在이라는 것이다. 또 성숙변증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성인신한 곰녀와 사람다운 사람으로 변신한 환웅이 결합하여 단군이 탄생되었다는 말의 상징적인 의미는 檀君은 사람다운 사람의 精髓, 홍익인간 할 수 있는 人格의 化身이라는 것이며, 그가 檀君王儉이란 말은 그가 바로 우리의 임금이며, 스승이고, 샤먼이며, 우리 민족의 始祖란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우리 민족의 人間觀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으며, 우리 민족에게 있어 사람다운 사람, 사람다운 삶, 삶다운 삶이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홍익인간 하는 사람이며 삶이다. 여기서 인격을 중시하는 우리 문화의 결을 읽어 낼 수가 있다.

마지막 단락의 이야기는 고조선의 건국과 단군의 山神化의 이야기로 “단군은 요임금이 즉위한지 50년 경술년에 평양에 도읍하고 이를 朝鮮이라 불렀으며, 또 도읍을 백악산 아사달에 옮기었는데 그곳을 궁홀산 또는 금미달이라고도 하니 그가 나라를 다스린 지 1,500년이였다. 周나라 武王이 즉위하고 기묘년에 기자를 조선에 봉하니 檀君은 장당경으로 옮기었다가 후에 아사달에 돌아와 숨어서 山神이 되었다. 나이 1,908세였다”는 것이다.

이 단락에서는 신화가 역사이전의 시대(era of pre-history)와 역사시대(era of history)를 연결시켜 주는 고리라는 것을 증명이나 해 주듯이 신들의 이야기(神), 사람됨의 이야기(人), 단군 탄생의 이야기를 거쳐 땅(地)에 관련된 역사적 사실로 매듭을 짓고 있다. 이 마지막 단락의 단군신화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고조선 건국의 史實이라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역사적인 考證을 필요로 하는 대목이다. 柳承國은 「檀君本紀」를 근거로 기술했다고 하는 『帝王韻紀』의 虎丁八乙未 入阿斯達

山爲神과 却後一百六十四 仁人聯復開君臣에 著目하고 殷曆譜를 중심으로 考證한 바에 의하면 『帝王韻紀』의 虎丁八乙未는 虎丁 八年이 아니라 虎丁 54年이고, 서기 1987년은 檀紀 4320이 된다고 하였다.<sup>33)</sup>

다음으로 단군신화의 이 마지막 단락에는 한국인의 生死觀이 드러나 있는 바, 사람다운 사람의 精髓요, 홍익인간의 化身인 단군의 역사는 1908년이다. 여기서 단군조선의 역사가 1,908년이라 보는 것이 타당 하겠다. 신화에 의하면 檀君은 1.908년이란 엄청난 나이를 살기도 죽지 아니하고 숨어서 山神이 된 것을 보면 사람다운 사람을 실현한, 즉 홍익인간 하는 人格을 실현한 사람은 天神이 아니라 山神이 되고, 이웃이 되어 우리와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따지고 보면 사람의 肉身은 병들어 죽지만 살아서 실현한 人格은 죽는 법이 없이 우리와 함께 이웃하여 살아간다. 檀君이 죽지 않고 숨어서 山神이 되었다는 것을 보면 농경생활의 터전인 아사달이 산이 아니고 들이라고 하면 백악산은 뫼이다. 그러므로 한국인의 죽음은 들에서 산으로, 이승에서 저승으로, 垂直移動이 아니라 水平移動을 할뿐이다. 그러므로 한국인의 生死觀은 ‘죽어서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비록 몸은 쇠약하여 죽어 가지만 그가 생전에 이룩한 人格은 죽는 법이 없다는 것을 信念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인의 무덤은 백악산이 축소판이고, 죽어서도 살아가기에 무덤 속에 삶의 공간을 마련하고, 살아생전 사용하던 모든 것들을 副葬品으로 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高麗人의 葬風이란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닌가 한다.

다음으로 축생 같던 보통사람이 성숙변증법적인 과정을 거쳐 홍익인간 하는 인격을 확립하는데 원용된 단군신화의 내용 중에서 인격교육의 원리를 간추린 바에 의하면 自發性的의 原理, 至誠의 原理, 忍苦의 原

33) 柳承國, 『韓國思想과 現代』, 동방학술연구원, 1988, 25~40쪽.

理, 覺醒의 原理가 그것이다 그리고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의가 언어화 된 것이 그 민족의 신화이고 신화가 행위화 된 것이 그 민족의 제의라고 하는 제의학과와 성년입사식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 단군신화 자체가 교육의 핵심내용이며, 教育課程의 節次는 단군신화의 내용을 순서대로 행위화 한 것이다.

신화가 의미상징의 체계라는 신화학적 관점에서 단군신화를 텍스트로 하여 이상에서 고찰한 바에 의하면 홍익인간 하는 삶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삶이 아니라 성숙변증법적인 과정을 거쳐 홍익인간을 할 수 있는 인격을 확립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삶이며, 그는 활연관통한 사람이나 깨달은 사람처럼 이타/애타적인 사람이며, 탈자기중심적인 사람이고, 탁월하게 뛰어난 지혜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한 인격이 확립되는 사람됨의 과정과 방법적 원리 및 내용과 절차 등등은 광복이후 우리의 교육을 주도해온 교육의 패러다임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V. 맺음에

광복 이후 우리 나라 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홍익인간의 교육이념이 무엇을 뜻하는 개념인지를 『三國遺事』의 「단군신화」를 텍스트로 하여 고찰한 바에 의하면 홍익인간이란 말은 인간이란 말이 ‘누리’인지 아니면 ‘사람’인지는 불분명하지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일’이며, 홍익인간의 이념이란 인간을 대상으로 하고, 인간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학적인 안목에서 보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인간을 기르고자 하는 우리 나라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이며, 홍익하는 인간은 우리 민족의 이상적인 인간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홍익인간하는 삶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삶이 아니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그가 당면하는 숙처럼 쓰고, 마늘처럼 맵고, 햇빛 없는 암울한 고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인격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삶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자발적인 願望이 感天할만 해야 하고, 그가 사람됨의 길에서 당면하는 고난을 인내하고 克服해야 한다. 그리하면 언젠가는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듯이 신비롭게도 홍익인간 할 수 있는 人格을 確立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민족의 말미를 전해 주고, 우리 교육의 원형을 제시해 주고 있는 단군신화의 가르침이요, 인격교육의 방법론이다. 이 교육의 원리와 사람됨의 과정은 광복이후의 우리 교육과는 패러다임을 달리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행의 교육 패러다임은 한정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기에 적합한 교육공학적인 패러다임이다. 그런 까닭에 홍익인간의 교육이념과는 거리가 먼 교육이다. 그러므로 해박한 지식이나 유능한 기술자를 양성하는데는 크게 공헌하고 있지만 人格을 길러내는 데는 자타가 공인하는바와 같이 실패하고 있다. 그래서 배운 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고학력의 사회가 되면 될수록 우리 사회의 도덕성이 타락해 가는 역설적인 현상을 빚어내고 있다. 따라서 홍익인간의 교육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살펴 본 교육공학에 기반을 두고 있는 현행 교육의 패러다임과 우리 민족의 교육의 원형에 제시되어 있는 인격교육의 패러다임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겠다. 그것이 홍익인간 할 수 있는 인격을 확립하여, 이 삶의 현장에서 홍익인간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인간을 기르는 교육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